

## 太陽人 체질특성에 관한 연구

김달래

삼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교실

### Abstract

#### A study on Co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aeyangin

Kim Dal-Rae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

##### 1. Objectives

I, the author, interviewed Taeyangin patients who were proved by clinical effect and also focused in bibliography to compare with Taeyangin patients case then I found out a several differences.

##### 2. Methods

I discoursed with comparing bibliography witch stated Taeyangin characteristics, such as 『Dongyi Suse Bowon』, 『Hwangje Nekyung』, 『Joongyi Chejihak』, with interviewed 8 Taeyangin patients.

##### 3. Results

All of these 8 Taeyangin's men and women had very strong sharp-sighted. In characteristics and mental state, they usually were rather conservative than decisiveness, quick-tempered. In women case, they had average 1.78 children, no sterility, and didn't show a anger or sadness. The most of case ,showing a very sensitive reaction to food, were Nechoksojangbyung(內觸小腸病證).

##### 4. Conclusions

These results could be a important reference documents to classify Taeyangin in clinic.

**Key Words :** Taeyang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nstitutional Characteristic

### 1. 서론

東武가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 “太陽人の 체형은 원래 감별하기 어렵지 않으나 사람 수가 드물기 때문에 가장 감별하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太陽人에 대한 체질진단의 난해성은 그 숫자가 희소성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래서 東武는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

論」에서 “太陽人은 그 수가 10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3~4명에서 많아야 10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며, 이 정도의 비율은 0.1% 미만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래서 東武도 太陽人의 대표질환인 噎膈과 反胃에 대해서만 언급했고 실제로 많았을 잠병에 대한 기록이 없었고, 역대의 의사를 또한 太陽人 질병에 대한 관찰기록을 남기지 못했던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太陽人에 대한 체질특성은 실제적 관찰보다 추론에 근거한 이론적 언급이 많았고, 병증에 대한 서술조차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太陽人의 체질적 특성 중 일부는 少陽

• 접수일 2005년 2월 21일 승인일 2005년 3월 30일  
• 교신처지 : 김달래  
원주시 우신동 삼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사상체질의학교실  
Tel : +82-33-741-9202, Fax : +82-33-743-7184  
E-mail : oriens21@freechal.com  
이 논문은 삼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의 결과로 작성된 논문임

人, 太陰人, 少陰人에 대한 서술 속에 들어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실제로 太陽人이 한의사 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쉽게 알아챌 수 없었고, 그 결과 평생토록 사상체질을 연구했던 임상가들조차 太陽人에 대한 임상례가 극히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저자는 사상의학 전공자들에게 부탁해서 뚜렷한 임상적 효과가 입증된 환자들을 인터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여러 명의 太陽人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상당수의 서적에서 표기한 太陽人의 체질적 특성에 대한 인식은 실제적 관찰보다는 「東醫壽世保元」<sup>1</sup>, 「黃帝內經」<sup>2</sup>, 「中醫體質學」<sup>3</sup>등을 바탕으로 성격과 심리적 특성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덧붙인 것이 많았다는 의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사상체질의학회 회원을 중심으로 이제까지 太陽人 처방을 투여해서 뚜렷한 효과가 났던 환자 중 남자 4명과 여자 4명을 직접면담해서 조사했다.

### 2. 조사방법

「東醫壽世保元」, 「黃帝內經·靈樞」, 「陰陽二十五人編」과 「通天篇」, 王琦의 「中醫體質學」 등의 서적 중에서 太陽人에 해당되는 언급내용을 실제 인터뷰한 사람들의 특성과 비교해서 저자가 판단하여 논술했다.

### 3. 조사기간

이번 연구는 2003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전국의 사상체질의학회 회원의 한의원에서 太陽人으로 체질관정을 받고 太陽人처방으로 치료 한 후, 뚜렷한 임상적 개선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환자를 연구자가 직접 대면 인터뷰하여 다시 太陽人임을 확정 한 후 임상적인 각각의 항목을 조사했다.

### 4. 조사내용

#### 1) 신체특성

- 2) 성격심리
- 3) 병증 및 섭생
- 4) 약물에 대한 반응
- 5) 음식에 대한 반응

### 5. 자료처리 및 통계

조사내용 중 「東醫壽世保元」, 「黃帝內經」, 「中醫體質學」에서 언급된 것을 기준으로 대상자의 특성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였다.

## III. 결 과

太陽人으로 체질관정을 받고 太陽人처방으로 치료 한 후, 뚜렷한 임상적 개선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환자를 연구자가 직접 對面인터뷰하여 다시 太陽人임을 확인한 8명에 대해 임상적인 각각의 항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1. 신체특성

#### 1) 체형기상(體形氣象)

東武는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 “太陽人 체형의 기상(氣象)은 뇌주(腦髓)의 기세가 웅장하고 허리의 서있는 형세가 연약하다.”라고 해서 건강한 太陽人의 체형과 기상을 말하고 있다.

실제 太陽人의 키와 몸무게, BMI는 한국인의 표준체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Table 1). 대상자중 남자 太陽人의 연령분포는 27세에서 65세였고, 여자 太陽人의 연령분포는 33세에서 56세였다.

Table 1. The Frequency of Pregnancy and Delivery in Taeyangin.

Constitution	Number	Age	Height	Weight	B.M.I.
Male Taeyangin	4	43.8±21.2	173.5±4.5	70.3±7.3	23.3±2.3
Female Taeyangin	4	41.3±14.7	158.0±5.0	60.5±6.5	24.2±2.2

Mean±Standard Deviation

#### 2) 용모(容貌)

王琦는 「中醫體質學」에서 “太陽人은 피부색이 희고, 대부분 눈에서 광채가 난다”<sup>3</sup>라고 말했는데,

Table 2. The Glitter of Eyes in Taeyangin.

Constitution	Number	Strong	Normal	Weak
Taeyangin	8	6	2	0

이것은 김주가 『性理臨床論』<sup>4</sup>에서 말한 것과 동일하며, 실제 太陽人의 눈빛을 조사한 결과 남녀 8명 중에서 6명의 눈빛이 강렬했다(Table 2).

王琦는 『中醫體質學』에서 “성격이 강경한 太陽人 남자는 대부분 눈자위가 노랗고, 머리카락이 노랗고 윤기가 흐른다. 또 太陽人 남자들은 간혹 수염이 자라지 않거나, 수염이 아주 조금밖에 자라지 않기도 한다.”<sup>3</sup>라고 말했는데 『東醫壽世保元』에서는 이와 관련된 조문이 없다. 저자가 직접 만나 면 접했던 太陽人 남자 4명 중 2명은 마른 체형이었는데 王琦의 서술과 같았으나 나머지 2명은 신체가 비만해서 그런지 王琦의 서술과 달리 털이 많았다 (Table 3).

Table 3. The thinly of Beard in Taeyangin.

Constitution	Number	Yes	Normal	Thick
Male Taeyangin	4	2	0	2

3) 말투

말투에 대한 언급을 보면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陽人은 비록 지극히 어리석더라도 그의 본성은 말씨가 명확하여 사람을 맞아들이는 듯하고, 비록 지극히 못났더라도 사람들의 선악을 분별할 줄을 안다.”라고 했다.

『黃帝內經·靈樞』 『陰陽二十五人編』에서는 금형지인 중에서도 “목소리가 대상(鈇商-차꼬처럼 꺾조인 상소리)인 경우는 사람됨이 청렴결백하고, 목소리가 우상(右商)인 경우는 사람됨이 소탈하고 거리낌이 없고, 목소리가 좌상(左商)인 경우는 사람됨이 시시비비를 잘 가리며, 목소리가 소상(少商)인 경우는 사람됨이 위엄이 있다”<sup>2</sup>라고 했으며, 王琦는 『中醫體質學』에서 “太陽人은 음성이 높고 맑고 크고 분명하고 우렁차다.”<sup>3</sup>라고 말했다.

또한 太陽人의 음성특성을 고저(高低), 강약(強弱), 장단(長短)과 완급(緩急)으로 구분하여 다른 체질적 특성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 太陽人은 남녀 모두 목소리가 우렁찬 특성

Table 4. The Resonant Voice in Taeyangin.

Constitution	Number	Yes	Normal	Weak
Male Taeyangin	4	4	0	0
Female Taeyangin	4	4	0	0

이 있었다(Table 4).

2. 성격심리

성격이나 심리는 생활환경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변하며, 교육이나 자신의 노력을 통해 정반대로 표현될 수도 있다.

1) 과단성

東武는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 “太陽人은 또 과단성이 있다.”라고 했고, 『黃帝內經·靈樞』 『陰陽二十五人編』에서는 “금형지인은 손 太陰肺經에 속하는데, 과단성이 있다”<sup>2</sup>고 했으며, 王琦도 『中醫體質學』에서 “太陽人 중 일부는 곳곳한 장수의 기질을 갖고 있으며 꽤 대범하다”<sup>3</sup>라고 말했다.

실제로 조사한 太陽人 8명 가운데 5명은 과감하거나 대범한 편이었다(Table 5).

Table 5. The Courageous Personality in Taeyangin.

Constitution	Number	Resolute	Normal	Timid
Male Taeyangin	4	2	2	0
Female Taeyangin	4	3	1	0

2) 의강조약(意強操弱)

東武는 『東醫壽世保元』 太陽人病證論에서 “太陽人은 의지(意志)가 강하지만 조행(操行)이 약하다. 의지가 강하면 胃脘의 기가 위로 올라가서 호산(呼散)하는 것이 많아지고 넘친다. 조행이 약하면 小腸의 기운이 가운데 뭉쳐서 흡취(吸取)되는 것이 부족하여 위축된다.”라고 했고, 『黃帝內經·靈樞』 『陰陽二十五人編』에서 “금형지인은 조급하고, 마음이 깨끗하여 욕심이 없고, 의지가 굳어 관리의 직분에 알맞다”<sup>2</sup>라고 했다.

실제로 조사한 太陽人 8명 가운데 지조가 약하다고 판단된 사람이 4명이었고, 3명은 보통정도로 생각되었으며, 1명은 지조가 굳세다고 판단되었다(Table 6).

Table 6. The Intensity of Principles in Taeyangin.

Constitution	Number	Ext. Rupte	Normal	Weak Rupte
Male Taeyangin	4	0	1	3
Female Taeyangin	4	1	2	1

### 3) 방종(放縱)

東武는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사람이 욕심을 따르는데 4가지 같지 않은 것이 있으니, 예(禮)를 버리고 방종하는 사람을 비인(鄙人; 더러운 사람)이라 한다.”라고 했고, 王琦는 『中醫體質學』에서 “太陽人은 방종이 지나치다”라고 했다.

실제로 조사한 太陽人 8명 가운데 방종하다고 판단된 사람은 2명에 지나지 않았고, 1명은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5명은 보통정도라고 판단되었다(Table 7).

Table 7. The Dissoluteness in Taeyangin.

Constitution	Number	Dissolute	Normal	Thrifty
Male Taeyangin	4	2	2	0
Female Taeyangin	4	0	3	1

### 4) 성정(性情)

성정에 대한 언급을 보면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陽人의 성기(性氣)는 항상 전진하려 하되 후퇴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했고, 또 “太陽人의 정기는 항상 수컷이 되고자 하되 암컷이 되고자 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으나 『黃帝內經』에서는 성정에 대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王琦는 『中醫體質學』에서 “太陽人들의 유년기를 보면, 여자아이인데도 어려서부터 남자아이들과 같이 뛰어 노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다.

실제로 太陽人의 성품을 조사한 결과 문헌적 기록과는 다르게 급진적이기 보다는 보수적인 면이 많아 전체 8명 중에서 5명이 보수적이라고 대답했다(Table 8).

Table 8. Conservative Nature or Progressive Nature in Taeyangin.

Constitution	Number	Conservative	Normal	Progressive
Male Taeyangin	4	3	1	0
Female Taeyangin	4	2	1	1

### 5) 재간(材幹)

東武는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 “太

Table 9. Social Relationship in Taeyangin.

Constitution	Number	Good	Normal	Bad
Male Taeyangin	4	3	1	0
Female Taeyangin	4	2	2	0

陽人의 성질은 활달한 것이 장점이며 재간(材幹)은 교우(交遇)에 능하다.”라고 했다.

실제로 太陽人의 재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 8명 중에서 5명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졌다고 판단되었다(Table 9).

### 3. 병증 및 섭생

東武는 辛丑本을 저술할 때 太陽人의 병증에 대해서는 甲午舊本의 내용에다 새로운 치험이나 변화된 病證論을 증보하지 않았다. 太陽人이 드문 것도 하나의 원인이기는 하나 太陽人 자체가 대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 1) 해역(解飢)과 열격(噎膈)

東武는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 “太陽人에게는 열격(噎膈), 반위(反胃), 해역(解飢) 등의 증이 있으니 역시 스스로 변증하기가 쉬운데, 별로 큰 증세가 없으며 아무 병이 없고 건강한 사람 같다.”라고 했다. 또 『東醫壽世保元』 太陽人 病證論에서 “척맥(尺脈)이 완상(緩澁)한 것을 일러 해역(解飢)이라 하는데, 상체는 건강하지만 하체가 풀려서 다리 힘으로 걸어갈 수 없으니 이것은 太陽人의 요척(腰脊)병으로 아주 중한 병증이다.”라고 했고, “음식물이 밖으로부터 들어올 때 방해 받는 것을 열(噎)이라 하고, 안으로 받아들일 때 막히는 것을 격(膈)이라 하며, 먹은 것을 토하는 것을 반위(反胃)라 한다.”라고 했는데 “모두 신기(神氣) 중의 하나로 太陽人의 小腸病이 아주 중한 병증이다.”라고 했다.

王琦는 『中醫體質學』에서 “太陽人은 허리와 발끝에 힘이 없다.”라고 했고, 또 “太陽人 여성은 안면부종이나 안면근육무력증이나 근육쇠퇴증에 많이 걸린다.”라고 했다.

실제로 太陽人의 위중한 질병인 解亦과 噎膈 병증을 가졌는가를 조사한 결과 전체 8명 중 아무도 이와 같은 病證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Table 9). 다만 8명 중에서 裏病에 속하는 사람이 1명이었기 때문에 獼猴藤植腸湯으로 효과가 나타났었고, 나머

Table 10. Severe Disease(Yul guck or Hae yuk) in Taeyangin.

Constitution	Number	Hae yuk(Exterior)	Yul guck(Interior)
Male Taeyangin	4	0(4)	0(0)
Female Taeyangin	4	0(3)	0(1)

지 7명은 모두 表病에 속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五加皮壯脊湯으로 효과가 나타났었다(Table 10).

2) 여성의 불임

東武는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 “太陽人 여자는 체형이 건장하고 실하나 간(肝)이 적고 옆구리가 좁아서 자궁이 부족하므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육축(六畜)으로써 말하면 太陽人 암컷 소와 말은 체형이 건장하고 실하나 역시 생산치 못하는 것은 그 이치가 동일한 것이다.”라고 했고, 王琦는 『中醫體質學』에서 “太陽人 여성은 간장 기능이 약하고 자궁의 발육이 부진하다.”라고 했다.

실제로 太陽人의 임신과 출산을 조사한 결과 평균 2.0회의 임신을 했었고, 1.75명의 자녀를 가졌다(Table 11).

Table 11. The Frequency of Pregnancy and Delivery in Female Taeyangin.

Constitution	Number	Pregnancy	Delivery
Taeyangin	4	2.00±1.00	1.75±0.75

Mean±Standard Deviation

3) 소변

東武는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 “太陽人은 오줌이 많으면 건장하다.”라고 했고, 王琦는 『中醫體質學』에서 “일반적으로 太陽人 남성은 쉽게 완고한 방광염에 걸릴 수 있다.”라고 했다.

실제로 太陽人의 재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 8명 중에서 단지 2명만 소변량이 많았고, 5명은 특별히 많거나 적지 않았으며, 1명은 적었다(Table 12).

Table 12. Urination in Taeyangin.

Constitution	Number	Large Amount	Normal	Small Amount
Male Taeyangin	4	2	2	0
Female Taeyangin	4	0	3	1

4. 약물에 대한 반응

약물에 대해 太陽人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8명 중에서 1명만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 나머지 7명은 오히려 보통이거나 둔한 반응을 보였다. 太陽人의 수가 희소한 관계로 처음부터 太陽人으로 판정하지 못하고 다른 체질로 치료하던 중에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나타나

마침내 太陽人으로 판단하고 치료했던 경우였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반응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다(Table 13).

Table 13. The Reaction to Herbal Medicine in Taeyangin.

Constitution	Number	Sensitive	Normal	Impervious
Male Taeyangin	4	0	1	3
Female Taeyangin	4	1	2	1

5. 음식에 대한 반응

東武는 『東醫壽世保元』 『少陰人泛論』에서 少陰人 浮腫과 少陽人 虛勞病에 노루간, 少陰人 痢疾에 項赤已, 마늘과 꿀 등을 먹어서 효과가 난 경우와 부작용이 난 경우를 언급하고 있으나 太陽人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래서 太陽人의 음식에 대한 반응을 조사해 보았더니 대체적으로 아무 음식이나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이었다. 8명의 太陽人 중에서 五加皮壯脊湯으로 치료효과를 보인 사람은 음식에 대해 민감하지 않았으며, 커피나 담배 등에 대해서도 관대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獼猴藤植腸湯으로 치료효과를 보인 사람은 太陰人의 음식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Table 14).

Table 14. The Reaction to Food in Taeyangin.

Constitution	Number	Sensitive	Normal	Impervious
Male Taeyangin	4	0	1	3
Female Taeyangin	4	1	1	2

IV. 고찰

사상의학은 기존의 의학과는 출발부터 다른 면이 있다. 모든 사람을 4개의 체질로 나누고, 그 해당 체질별로 생리 병리 진단 치료 및 섭생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도 않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太陽人의 분포비율과 체질구분 기준법에 근거한 太陽人의 인식문제이다. 太陽人의 절대숫자가 적은 관계로 연구의 대상이나 저술의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수가 많다. 실제로 김주는 『性理臨床論』의 체질통찰법이라는 단원에서 체질별 특징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언급하면서도 太陽人에 대해서는 ‘눈빛이 강하다’라는 것과 추상적 동물인 ‘용(龍)의 성

(性)'을 가지고 있다면서 간단히 서술하였는데, 분포비율이 적고 임상례가 부족하기 때문인 듯하다.

실제 東武도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 “太陽人は 그 수가 10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3-4명에서 많아야 10명에 지나지 않는다”<sup>1</sup>라고 했는데, 이 정도의 비율은 많아야 0.1% 미만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정보교류가 활발한 현대사회의 특성상 5000만명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 중 적어도 수만 명에 해당되는 태양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태양인에 대한 연구를 접혀두고 있을 수만 없는 것도 사실이다.

또 사상체질을 구분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體形氣像, 容貌詞氣, 性質材幹 및 病證藥理인데 사상 의학에 대해 서술한 학자나 임상가 중 상당수의 태양인의 체질적 특성에 대한 인식과 기술은 실제적 관찰보다는 『東醫壽世保元』, 『黃帝內經』, 『中醫體質學』 등의 서적에서 표현된 내용을 바탕으로 성격과 심리적 특성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덧붙이고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도 하다.

唐나라 때 관리를 뽑을 때는 4가지 기준을 사용했는데, 첫째가 체모(體貌)의 풍위(豐偉)였고, 두 번째가 언사(言辭)의 변정(辯正)이었고, 세 번째가 해법(措法)의 준미(遵美)였으며, 네 번째가 문리(文理)의 우장(優長)이었으니 이를 줄여서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사상체질을 구분하는 경우에도 신체특성 중 밖으로 드러난 부분을 먼저 보게 된다.

體形氣像에 대한 언급을 보면 『黃帝內經·靈樞』 『通天篇』에서는 “태양지인은 득의만만한 표정을 짓듯이 턱을 위로 치켜세워 오만하게 보이고, 허리를 뒤로 젖히고 배를 내밀어 몸이 뒤로 젖혀지고 오금이 흰 것 같다.”<sup>2</sup>라고 해서 병적인 상태의 태양지인을 말하고 있는데 비해 東武는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 “太陽人 체형의 기상(氣像)은 뇌추(腦髓)의 기세가 웅장하고 허리의 서있는 형세가 연약하다.”<sup>3</sup>라고 해서 건강한 태양인의 체형과 기상을 말했고, 『黃帝內經·靈樞』 『陰陽二十五人編』에서는 “금형지인은 머리, 肩背, 복부, 수족이 작고 심하게 야위었다.”<sup>2</sup>라고 하여 오행체질 중 금형인의 특징을 말했다. 실제로 키, 몸무게,

B.M.I (Body Mass Index = 몸무게/kg/키<sup>2</sup>m)만으로 체형기상을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이번에 조사한 결과를 보았을 때 태양인의 키와 몸무게, BMI는 한국인의 표준체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Table 1).

용모사기(容貌詞氣)에 관한 언급을 보면 『黃帝內經·靈樞』 『陰陽二十五人編』에서 “금형지인은 얼굴이 모나고 피부색이 희며, 몸놀림이 가볍다.”<sup>2</sup>라고 하여 오행체질 중 금형인의 특징을 말하고 있고, 한희석은 『화요한방』 강간호에서 “太陽人は 얼굴 모양이 둥글다.”<sup>7</sup>라고 한 것과 상반된 것이며 실제로 면담했던 태양인의 얼굴이 둥글었던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王琦는 『中醫體質學』에서 “太陽人は 피부색이 희고, 대부분 눈에서 광채가 난다.”<sup>4</sup>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김주가 『性理臨床論』<sup>4</sup>에서 말한 것과 동일하며, 실제 태양인의 눈빛을 조사한 결과 남녀 8명 중에서 6명의 눈빛이 강렬했다(Table 2).

또한 王琦는 『中醫體質學』에서 “성격이 강경한 태양인 남자는 대부분 눈자위가 노랗고, 머리카락이 노랗고 윤기가 흐른다. 또 태양인 남자들은 간혹 수염이 자라지 않거나, 수염이 아주 조금밖에 자라지 않기도 한다.”<sup>4</sup>라고 말했는데 『東醫壽世保元』에서는 이와 관련된 조문이 없다. 저자가 직접 대면해서 면접했던 태양인 남자 4명 중 2명은 마른 체형이었는데 王琦의 서술과 같이 수염이 적은 편이었으나 나머지 2명은 신체가 비만해서 그런지 王琦의 서술과 달리 털이 많았다(Table 3).

말투에 대한 언급을 보면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陽人は 비록 지극히 어리석더라도 그의 본성은 말씨가 명확하여 사람을 맞아들이는 듯하고, 비록 지극히 못났더라도 사람들의 선악을 분별할 줄을 안다.”<sup>1</sup>라고 했다.

여기서 태양인의 ‘말투가 명확하다’라는 것은 말의 속도가 빠르지 않고 조급함이 없으며 문단이 길지 않아서 긍정과 부정이 뚜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태양인의 목소리는 웅장하면서 가볍지 않아 의미전달에 있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태양인의 말투가 ‘사람을 맞아들이는 듯하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의심이나 반대의견을

내가 보다는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히 드러냄으로써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상대방의 요구에 쉽게 응하고 결국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협상하는 입장에서 보면 얻는 것이 적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黃帝內經·靈樞』 「陰陽二十五人編」에서는 금형지인 중에서도 “목소리가 대상(鈇商·차꼬처럼 짙은 소음인 상소리)인 경우는 사람됨이 청렴결백하고, 목소리가 우상(右商)인 경우는 사람됨이 소탈하고 거리가 없고, 목소리가 좌상(左商)인 경우는 사람됨이 시시비비를 잘 가리며, 목소리가 소상(少商)인 경우는 사람됨이 위엄이 있다”<sup>2</sup>라고 했으며, 王琦는 『中醫體質學』에서 “太陽人は 음성이 높고 맑고 크고 분명하고 우렁차다.”<sup>3</sup>라고 말했다.

『黃帝內經·靈樞』 「陰陽二十五人編」에서는 금형지인의 목소리는 오음(五音) 중에서 상(商)소리로 설정했고, 이는 김구익의 사성론(四聲論)<sup>5</sup>과 일치하며, 이를 대상(鈇商), 우상(右商), 좌상(左商)과 소상(少商)으로 세분해서 설명했으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체질에 따른 몇 개의 소증(素證)에 따른 구분이 아닌가 추측된다.

또한 太陽人의 음성특성을 고저(高低), 강약(強弱), 장단(長短)과 완급(緩急)으로 구분하여 다른 체질적 특성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며, 실제 太陽人은 남녀 모두 목소리가 우렁찬 특성이 있었다(Table 4).

성격이나 심리는 생활환경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변하며, 교육이나 자신의 노력을 통해 정반대로 표현될 수도 있다. 하지만 東武는 『格致彙』 「獨行篇」에서 “지혜를 다해서 관찰하면 그 이면의 성격이나 심리를 찾지 못할 점이 없다.”<sup>9</sup>고도 했다.

과단성에 대한 언급을 보면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 “太陽人은 또 과단성이 있다.”<sup>1</sup>라고 했고, 『黃帝內經·靈樞』 「陰陽二十五人編」에서는 “금형지인은 手太陰肺經에 속하는데, 과단성이 있다”<sup>2</sup>고 했다. 원문으로는 敦敦然이라고 했는데 司馬의 주에서는 “斷”이라고 했다. 이때의 과단성은 맺고 끊음이 분명하여 과단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했으며, 王琦는 『中醫體質學』에서 “太陽人 중 일

부는 아주 뛰어난 기질을 발휘하고, 또한 깨끗한 장수의 기질을 갖기도 한다.”<sup>3</sup>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조사한 太陽人 8명 가운데 5명은 과감하거나 대범한 편이었다(Table 5). 이러한 사실은 문헌적 기술과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太陽人의 언어습관은 단순하고 명료한 것을 선호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따리우는 성품이었으며, 거북하거나 귀찮은 상대방의 요청에 대해서도 잘 들어주는 편이었다.

의지는 강하지만 지조가 약한 것에 대한 언급을 보면 『東醫壽世保元』 太陽人病證論에서 “太陽人은 의지(意志)가 강하지만 조행(操行)이 약하다. 의지가 강하면 胃脘의 기가 위로 올라가서 호산(呼散)하는 것이 많아지고 넘친다. 조행이 약하면 小腸의 기운이 가운데 뭉쳐서 흡취(吸取)되는 것이 부족하여 위축된다.”<sup>1</sup>라고 했고, 『黃帝內經·靈樞』 「陰陽二十五人編」에서 “금형지인은 조급하고, 마음이 깨끗하여 욕심이 없고, 의지가 굳어 관리의 직분에 알맞다”<sup>2</sup>라고 했다.

실제로 대면하여 면접한 太陽人 8명 가운데 지조가 약하다고 판단된 사람이 4명이었고, 3명은 보통정도로 생각되었으며, 1명은 지조가 굳세다고 판단되었다(Table 6). 이러한 사실은 다른 체질과 비교했을 때 독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東武가 살았던 시대에 비해 자신의 적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다양하고, 자기계발의 기회가 많으며, 이런 시대적 변화는 물론이고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太陽人은 사소한 일에 얽매이기보다는 가슴 속의 울화를 자신의 장점으로 승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방중에 대한 언급을 보면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사람이 욕심을 따르는데 4가지 같지 않은 것이 있으니, 예(禮)를 버리고 방중하는 사람을 비인(鄙人; 더러운 사람)이라 한다.”<sup>1</sup>라고 했고, 王琦는 『中醫體質學』에서 “太陽人은 방중이 지나치다”<sup>2</sup>라고 했으며, 『黃帝內經·靈樞』 「通天篇」에서는 “태양지인은 매사에 만족스러워하고, 大事를 논하길 좋아하고, 무능하면서도 빈말을 잘 하고, 비현실적인 것을 추구한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항상 감정적으로 처리하며, 자신이 지나쳐 도모하던 일이 비록 실패할지라도

후회하지 않는다<sup>22</sup>라고 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한 태양지인은 성인이나 현인이 음양화평지인이라는 가정 하에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다. 따라서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태양인과는 동일한 개념의 체질이지는 않다.

또한 王琦는 『中醫體質學』에서 “太陽인은 방증이 지나쳐서, 안하무인이고, 일을 할 때 착오가 있어도 후회하지 않는다.”<sup>23</sup>라고 했다. 이는 상당수 저작에서 태양인을 애매모호하고 비현실적인 사람을 표현한 것과 일치하며, 상당수의 한의사들도 이를 바탕으로 유추적 견해를 서술했으며,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관계로 실제의 태양인에 대한 성격심리적 서술과는 동떨어지게 되었다고 본다.

실제로 조사한 태양인 8명 가운데 방증하다고 판단된 사람은 2명에 지나지 않았고, 1명은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5명은 보통정도라고 판단되었다(Table 7). 태양인은 지나친 형식보다는 간단 명료한 행동양식을 좋아하고, 복선을 깔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싫어하는 특성이 있었다. 예법이란 하기 싫어도 그런 내색을 하지 말아야 하고, 좋아도 그런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태양인의 생활방식과 괴리가 있다. 하지만 교육과 수양을 통해 이런 태양인의 특성도 충분히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비속한 인격체와는 다른 고결한 태양인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성정에 대한 언급을 보면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陽인의 성기(性氣)는 항상 전진하려 하되 후퇴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했고, 또 “太陽인의 정기는 항상 수컷이 되고자 하되 암컷이 되고자 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으나 『黃帝內經』에는 체질론에서 성정에 대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王琦는 『中醫體質學』에서 “太陽인들의 유년기를 보면, 여자아이인데도 어려서부터 남자아이들과 같이 뛰어노는 것을 좋아한다.”<sup>24</sup>라고 했다.

또한 東武는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 “太陽인은 급박한 마음이 있으나 안정되고 고요하면 간혈(肝血)이 조화를 이룬다.”<sup>1</sup>라고 부연해서 설명했고, 『廣濟說』에서는 게으르고 술에 탐닉하는 태양인은 옹기장수의 헛된 꿈만 꾸기 때문에 부지런한 습성을 들이고 독서를 함으로써 장기(臟

氣)를 견고히 하며, 재주나 성품이 조밀하게 하면 일이 잘못되었을 때나 후퇴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태양인의 계책이라고 알려주고 있다.

실제로 태양인의 성품을 조사한 결과 문헌적 기록과는 다르게 급진적이기 보다는 보수적인 면이 많아 전체 8명 중에서 5명이 보수적이라고 대답했다(Table 8). 이런 결과는 교육과 수양을 통해 스스로를 절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급진적이거나 엉뚱한 일을 벌이는 것이 무모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한 학습효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몇몇 태양인은 계획적인 경제생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으며, 배우자나 가족들이 자연스레 경제권을 대행하는 특성이 있었다.

재간에 대해 살펴보면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 “太陽인의 성질은 활달한 것이 장점이며 재간(材幹)은 교우(交遇)에 능하다.”라고 했다. 교우란 다른 사람과 만나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줌으로써 상대방에게 이로운이 되거나 상대방이 자신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야 그 교우가 유지되는데, 태양인은 만난 사람의 단점보다 장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너그럽게 감싸는 면이 있었다. 마치 공자가 ‘三人行 必有我師’라고 말했던 것과 같았다.

실제로 태양인의 材幹을 조사한 결과 전체 8명 중에서 5명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졌다고 판단되었다(Table 9). 사회생활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저자가 면담했던 가족들의 태양인에 대한 평가는 좋게 말해서 ‘천사’였고, 나쁘게 말해서 ‘바보’라는 표현이 많았으며, 처음에는 이런 점 때문에 불만도 많았으나 점차 익숙해졌으며, 본성이 착해서 그렇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黃帝內經·靈樞』 『通天篇』에서 “태양지인은陽이 많고陰이 없으므로 반드시 조심스럽게 치료하여 그陰이 더 소모되지 않도록 하고, 남아도는陽을 빼내야 한다. 만약陽氣가 지나치게 빠져나가면陽氣가 부족해져서 狂證이 나타나고,陰氣와陽氣가 모두 빠져나가면 갑자기 죽거나 인사불성이 되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sup>25</sup>라고 해서 사상의학의 태양인과는 상당히 괴리된 病證을 논하고 있다.

東武는 태양인의 病證에 대해서는 甲午舊本の



내용에다 새로운 치험에나 변화된 病證論을 증보하지 않았다. 太陽人이 드문 것도 하나의 원인이기는 하나 太陽人 자체가 대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噎膈과 反胃에 대한 언급을 보면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 “太陽人에게는 열격(噎膈), 반위(反胃), 해역(解飮) 등의 증이 있으니 역시 스스로 변증하기가 쉬운데, 별로 큰 증세가 없으며 아무 병이 없고 건강한 사람 같다.”라고 했다. 또 『東醫壽世保元』 太陽人 病證論에서 “척맥(尺脈)이 완삼(緩澁)한 것을 일러 해역(解飮)이라 하는데, 상체는 건강하지만 하체가 풀려서 다리 힘으로 걸어갈 수 없으니 이것은 太陽人의 요척(腰脊)병으로 아주 중한 병증이다.”라고 했고, “음식물이 밖으로부터 들어올 때 방해를 받는 것을 열(噎)이라하고, 안으로 받아들일 때 막히는 것을 격(膈)이라 하며, 먹은 것을 토하는 것을 반위(反胃)라 한다.”<sup>10</sup>라고 했는데 “모두 신기(神氣) 중의 하나로 太陽人의 小腸病이 아주 중한 병증이다.”라고 했는데, 주기성구토증후군(CVS-Cyclic Vomiting Syndrome)과 비슷한 양상의 질환으로 추정된다.

주기성 구토 증후군은 내시경, Brain CT 상 아무런 기질적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기적으로 구토하는 병인데, 주로 2~9세 아이에게 더 잘 생기며, 기분이 아주 나쁠 때나 즐거워서 흥분할 때도 생기기도 한다. 증상은 밤낮 가릴 것 없이 주기적으로 구토하기도 하고, 한 번 구토를 시작하면 12~48시간 동안 계속 구토할 수도 있으며, 심할 경우에는 여러 날 동안 계속 된다. 어떤 때에는 두통, 복통 또는 설사 등 다른 여러 증상이 같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구토하지만 아무 때나 구토하기도 하며, 구토하기 바로 전에 우울해하거나 욕지거리하고 군침을 흘리기도 한다. 심하게 구토할 때는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이 일어나 탈진될 수도 있다.<sup>8</sup> 저자가 면접했던 太陽人은 모두 성인이었기 때문에 CVS가 없었으며, 실제로 太陽人의 위중한 질병인 解亦과 噎膈병증을 가졌는가를 조사한 결과 전체 8명 중 아무도 이와 같은 병증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Table 9).

『東醫壽世保元』 끝부분에서 東武는 太陽人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서 갑오구본의 太陽人 병증에 대한 내용을 증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東武 자신이 太陽人 체질로 태어나 6~7년 동안이나 연말(涎沫)을 토하는 噎膈병을 앓았고, 수십 년 동안이나 몸을 섭양하여 병을 치료하였던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병증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더구나 그 당시에 비해 정보와 인적교류가 활발한 현재에 이르러서도 解亦이나 噎膈병에 대한 명확한 질병군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의 한의사는 사상의학이 아닌 ‘삼상(三象)의학’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太陽人 질병에 대한 자료의 축적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성의 불임에 대한 언급을 보면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 “太陽人 여자는 체형이 건장하고 실하나 간(肝)이 적고 옆구리가 좁아서 자궁이 부족하므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육축(六畜)으로써 말하면 太陽人 암컷 소와 말은 체형이 건장하고 실하나 역시 생산치 못하는 것은 그 이치가 동일한 것이다.”라고 했고, 王琦는 『中醫體質學』에서 “太陽人 여성은 간장 기능이 약하고 자궁의 발육이 부진하다.”<sup>3</sup>라고 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이미 東武 생존 때부터 이론이 있었고, 직계 제자였던 한두정은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의 “太陽女...不能生產”의 조문을 “太陽女...鮮能生產”<sup>6</sup>으로 바꾸었을 정도다. 비록 王琦도 『中醫體質學』에서 “太陽人 여성은 자궁의 발육이 부진하고, 太陽人 남성은 쉽게 완고한 방광염에 걸릴 수 있다.”<sup>3</sup>라고 했다.

그러나 영양섭취가 충분한 현대 여성들은 비록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陽人은 人倫에 대하여 넓게 통할 수 없어서 太陽의 血이 肝으로 돌아가는 것이 적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太陽人 여성 4명의 임신과 출산을 조사한 결과 평균 1.75명이었고, 불임은 없었다(Table 5). 이는 교육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영양공급이 좋아졌기 때문에 불임의 가능성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소변에 대한 언급을 보면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 “太陽人은 오줌이 많으면 건강하다.”라고 했다.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기거생활이 규칙적이기 때문에 배변주기도 거

의 일정한 편이다. 그래서 배뇨량을 조사해본 결과 1회 배뇨량이 300cc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전체 8명 중에서 단지 2명만 소변량이 월등히 많았고, 5명은 특별히 많거나 적지 않았으며, 1명은 적었다 (Table 12). 또 4명의 여성 太陽人 가운데 1명은 太陽人五加皮壯脊湯을 복용하고 나서 소변량이 확실히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東醫壽世保元』에 보면 少陽人病證論에서 少陽人의 滯證에 蘇合香元을 생강달인 물로 먹고 나서 설사하는 부작용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으나 太陽人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 太陽人의 약물에 대한 특이한 반응에 대해 살펴보면, 기존의 한의학 서적에서는 별다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다만 임상가들의 몇몇 주장이 기록에 남아 있을 뿐이다. 임상가들도 대부분 처음에는 太陽人 이외의 체질로 판단하고 치료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어서 太陽人으로 치료하여 뚜렷한 호전효과가 나타난 다음에야 太陽人으로 확정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太陰人으로 판단하고 치료한 예이고, 淸心蓮子湯에 鹿茸1錢을 가해서 치료했던 결과 녹혈(衄血)과 식체가 발생했고, 五加皮壯脊湯으로 주소증인 피로와 감기후유증을 치료했다.

처음에는 少陽人으로 분류하고 荊防敗毒散, 荊防瀉白散, 荊防導赤散, 獨活地黃湯, 陽毒白虎湯, 涼膈散火湯 등을 투여했으나 갱년기 장애증후군의 증상호전이 만족스럽지 못했고, 蜂毒 주입 시 알레르기 반응이 강하게 발현했었으나 五加皮壯脊湯으로 치료 후 증상이 대부분 사라졌다.

少陰人의 만성위염으로 진단하고 養胃湯類로 치료했다가 증상변화가 없어 獼猴藤植腸湯을 투여한 결과 만성위염에 수반되는 계증상이 사라진 환자도 있었고, 어떤 약이나 먹기만 하면 기능성 자궁출혈이 나타났던 환자에게 獼猴藤植腸湯을 투여한 결과 소변량이 증가하면서 피로가 풀리고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다는 임상례도 있었다.

약물에 대해 太陽人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조사해본 결과 전체 8명 중에서 1명만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 나머지 7명은 오히려 보통이거나 둔한 반응을 보였다. 太陽人의 수가 희소한 관계로 처음부터 太陽人으로 판정하지 못하고 다른 체질로 치료하던 중에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나타나

마침내 太陽人으로 판단하고 치료했던 경우였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반응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다(Table 13).

음식반응에 대한 언급을 보면 『東醫壽世保元』 「少陰人泛論」에서 少陰人 浮腫과 少陽人 虛勞病에 노루간, 少陰人 痢疾에 項赤蛇, 마늘과 꿀 등을 먹고서 효과가 난 경우와 부작용이 난 경우를 언급하고 있으나 太陽人에 대한 언급은 없다.

실제로 대면해서 면접하면서 太陽人의 음식반응에 대해 조사해 보면 대체적으로 아무 음식이나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이었고, 五加皮壯脊湯으로 치료효과를 보인 사람은 음식반응에 대해 예민하지 않았으며, 커피나 담배 등에 대해서도 관대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獼猴藤植腸湯으로 치료효과를 보인 사람은 太陰人의 음식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육식을 하고나면 몸에 열이 나고, 배를 먹고 나면 물에 체한 듯한 느낌이 든다고 했고, 커피에 대해서도 민감했으며, 메밀이 주재료인 국수나 냉면은 속이 편해서 자주 먹는 편이었다.

8명의 太陽人 중에서 五加皮壯脊湯으로 치료효과를 보인 사람은 음식에 대해 민감하지 않았으며, 커피나 담배 등에 대해서도 관대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獼猴藤植腸湯으로 치료효과를 보인 사람은 태음인의 음식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Table 14).

전체적으로 보면 太陽人은 채소류와 해산물 섭취를 즐기고, 튀김류를 좋아하고 육류도 가리지 않고 먹는 편이다. 조미료에 대해 무감각하여 음식 만드는 솜씨가 좋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자신의 체질이 太陽人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太陽人에게 이로운 음식과 해로운 음식을 선택하여 따르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음식섭취 시 채소류나 해산물을 먹으면 편하다고 해서 반드시 太陽人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음식의 종류가 적거나 지방이 없는 경우에는 소화율이 높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채소류나 해산물을 먹고 나서 속이 편하면 太陽人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V. 결론

임상적 효과가 입증된 太陽人 환자들을 대면면담하고 문헌적으로 언급된 太陽人의 체질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신체특징에서 太陽人은 남녀 모두 눈에서 광채가 나듯이 강한 눈빛을 가졌다.
2. 성격적으로 과감하고 급진적이기 보다는 평범하거나 보수적이었다.
3. 여성의 경우 불임은 없었고, 평균 1.75명의 자녀가 있었다.
4. 대체적으로 약물에 대한 뚜렷한 부작용은 없었으며, 약물반응을 통한 太陽人의 체질분류는 명확하지 않았다.
5. 음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경우는 內觸小腸病證에 속한 경우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음식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았다.

VI. 참고문헌

1. 전국한외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사상의학. 집문당, 서울, 1998:417-418. 427, 349.
2. 黃帝內經 靈樞. 성보사, 서울, 1995:469-470.
3. 김달래 역. 中醫體質學. 도서출판 정담, 서울, 1999:456-469.
4. 김주. 성리임상론. 대성문화사, 서울, 1997:40-72.
5. 김달래 역. 東醫壽世保元 초고(부 사상임해지남). 도서출판 정담, 서울, 2001:134.
6. 김달래. 이제마가 분석한 명인들의 사상체질. 도서출판 정담, 서울, 2000:64.
7. 한희석. 화요한방. 창간호 화요한의학연구회, 서울, 1972:20-28.
8. 김유경, 이동수, 강은주, 서정기, 여정석, 정준기, 이명철. 주기성구토 증후군 환아에서 보인 F-18 FDG PET 에서의 뇌 포도당 대사 소견. 핵의학회지. 2001;35:198-204.
9. 이제마. 격치고. 신태양사, 서울, 1985:287-291.
10. Song Il-byung. An Introduction to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Jimoondang, Seoul, 2005:26-27.